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 시·도·기업·국회 맞손

지방소멸·기후변화 등 국가위기 극복 협력·입법 활동 등 협력 다짐 첨단 1·3 지구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특화단지' 유치 활동도

광주시와 전남도,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이 지역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 전남도, LG이노텍, 양항자 의원은 지난 24일 화상회의를 통해 '국가위기 극복 및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소멸·에너지·기후변화 위기 극복, 첨단 전략산업 육성, 입법 활동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내에 첨단전략산업 특

화단지가 들어서면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대한민국의 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경제안보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자체, 기업 및 입법기관이 함께 손잡은 이번 협약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전반의 경제발전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 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지렛대로 함께 하는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계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최고 권위자인 양 의원, 글로벌기업인 LG이노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쁘고 든든하다"면서 "위기 극복, 전략산업 육성에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힘으로 앞장 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항자(무·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LG이노텍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광주·전남의 탄탄한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융합된다면 무한한 상승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기업들이 신규 투자 대상 국가나 지역을 정할 때 재생에너지 100% 여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식이 LG이

노텍과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철동 LG이노텍(주) 대표이사는 "이번에 체결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앞으로 기업, 국회,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등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 지구 일대에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Advanced PKG)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산업부에 특화단지 지

정 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제조·후공정(패키징) 등 3단계로 나눠 제작하는 데, 광주·전남은 반도체를 충격·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막을 두르고 외부 단자와 칩을 연결하는 패키징 분야를 특화 육성하는 게 목표다.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상생 1호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와 용수·교통 인프라, AI·자동차·전력 등 전후방 산업,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시장, 대학생들과 소통 퀴즈 대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기원 커피차 이벤트'에 참여해 대학생들과 소통 퀴즈 대결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국회 '군공항특별법' 전략회의

강기정 시장-송갑석 의원, 다음달 국회 통과 긴밀 협력

내일 민주 지도부와 최종 논의

광주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24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략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시장과 송 의원은 이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가 지원, 이전 지역 주변의 개발 예정지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군 공항 특별법이 다음달 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통과 수순으로 간다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는 2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주관으로 국방위 김병주 간사, 국토위 최인호 간사, 김성환 정책위 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모여 군 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강 시장도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다음달 광주와 대구 공항 특별법의 동시 처리를 부탁하고, 훈포장 대구시장과도 통화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후보지 결정, 부지 활용 등 속제가 많은 만큼 잘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한발 빠른' 국비 확보전

박창환 부지사, 기재부 등 주요 부처 방문해 현안 건의

전남도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선제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9849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안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청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나 2024년 국고 현안사업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

특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찾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 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면담,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는 현행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개발이 가능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어렵다"며 "광양국가산단 미활용 부지에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업종의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오는 29일 해수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이주호 항만국장을 만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목표인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철재부두의 조기 조성하고 기업입주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고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선 호남선의 출발지인 목포역의 노후 역사 개량 및 철도 재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AI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농생명밸리)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솔라시도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신속 추진 ▲그린수소 저장·운송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이 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서 10월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

30·31일 개최...공통 주제 '관광활성화 방안' 선정

우리나라와 일본의 8개 시도현 단체장이 참석하는 제31회 지사회의가 오는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열린다. '관광활성화 방안'을 공통 주제로 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목포에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의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지사회의의 공통 주제를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결정했다. 한일해협 8개 시도현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실무회의에선 지난 지사회의에서 제안된 신규 공동사업 추진 방향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제31회 지사회의 일정 및 공통 주제를 논의했다. 또 지난해 제30회 지사회의에서 제안된 신규 공동사업인 녹색성장 학생회의는 2023년 혹은 2024년도 사업 개시를 목표로 올해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29회 지사회의에서 논의된 도시재생 정책교류를 위한 교환연수 사업을 2023년 경남, 2024년 일본 사기현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단순한 상호교류를 넘어 한·일 지방정부 공동사업에 대한 지혜를 나누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31회 회의도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됐다. 한국에서 전남, 경남, 부산, 제주, 일본에서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알베르 카뮈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